

# 고용·복지 관련 언론 일일동향(11/30)

2017.11.30.(목) 고용복지팀

## ■ 주요 기사

매경	<a href="#">가맹점 타격·제빵사 실직·본사 휘청...모두가 불행한 길</a>
	<a href="#">프랜차이즈 접어야 하나 떨고있는 업계</a>
경향	<a href="#">가맹점 타격·제빵사 실직·본사 휘청...모두가 불행한 길</a>

## ■ 주요 칼럼·사설

중앙	<a href="#">[시론] 최저임금 취지 제대로 살리려면</a>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매경	<a href="#">[사설] OECD도 지적한 최저임금·법인세 인상의 위험성</a>
한경	<a href="#">[편집국에서] 노동이사, 복수노조 그리고 트로이 목마</a>
한겨레	<a href="#">[기고] '노사합의'로 정규직 전환을</a>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조선	노사	제목	<a href="#">[동서남북] "돈 잘 버는 분들이 왜 이러시느냐"</a> A39면
		내용	현대차 노조, 사측이 신차 '코나' 양산을 위해 일부 부품 생산을 하도급업체에 발주하고, 일감이 적어진 직원들을 다른 공정에 배치한 것을 두고 쇠사슬 묶고 투쟁하고 하도급 물량 회수까지 주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대폭 상승 같은 굵직한 친노동 정책이 이 정부 들어 몰아치듯 진행 중. 주로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형태로 추진. '노동 적폐' 청산이 목적이려면 그 리스트에 기득권 노조도 들어가야 함.
중앙	고용 노사	제목	<a href="#">[시론] 최저임금 취지 제대로 살리려면</a>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A33면
		내용	과거 1가구에 1명씩 노동시장에 참여하던 시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효과적으로 가구소득 격차를 축소하고 빈곤을 완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의 노동시장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와 빈곤층간 일치율이 일반적으로 낮다.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30% 정도로 파악된다. 빈곤 고령 가구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서비스화로 인한 저임금 노동의 증가 때문이다. 빈곤하면서도 저임금인 근로자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근로장려세제(EITC) 등 정부재정지출로 보조하는 것이 더 나은 방식이라는 관점이 확산하고 있다.
매경	고용 노동	제목	<a href="#">가맹점 타격·제빵사 실직·본사 휘청...모두가 불행한 길</a> A12면
		내용	가맹점·협력업체와 함께 3자 합작법인 설립해 고용형태 전환 추진하지만 과태료 부과까지 시간 촉박 제빵사 60% "현재고용 만족"...승자없는 상황 될수도
		제목	<a href="#">프랜차이즈 접어야 하나 떨고있는 업계</a> A12면
		내용	한식·일식업체 조리사 등 향후 고용부 해석 노심조사
		제목	<a href="#">[사설] OECD도 지적한 최저임금·법인세 인상의 위험성</a> A35면
		내용	OECD는 공공 부문 고용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며 사회적 지출을 확대하는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생산성을 끌어올릴 개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소득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재정정책도 생산성 제고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	고용 노사	제목	<a href="#">[편집국에서] 노동이사, 복수노조 그리고 트로이 목마</a> A37면
		내용	서울시의 친노동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바람대로 근로자이사제 논란은 서울시를 떠나 중앙부처 공공부문을 건너뛰고 민간부문으로 직행했다.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는 근로자 사외이사 선임안이 올라왔다. 선임안은 부결됐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노사합의가 먼저"라며 급히 불을 끄긴 했지만 다음주 금융기관에 근로자이사제 시행안을 담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나올 예정이어서 제도 도입은 시간 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한겨레	고용 노동	제목	<a href="#">[기고] '노사합의'로 정규직 전환을</a>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25면

매체명	주 제	내 용	
		내용	.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도해도, 정작 고용의 중심인 민간부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7일 인천에 있는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주)와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조가 직접고용 합의를 도출한 것은 크게 주목된다.
경향	노사	제목	<b>파리바게뜨, 530억 과태료 폭탄에도 직접고용 미룰 듯</b> A20면
		내용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파리바게뜨가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들을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530억원).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파리바게뜨가 과태료 이의 신청과 취소 소송 등으로 '자연작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 최종적으로는 가맹본사-가맹점주-협력사 3자 합작법인을 통해 직접고용 대상 제빵기사수를 줄여서 직접고용 대상 인원을 줄여 과태료 규모를 축소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옴
	고용 복지	제목	<b>롯데, 올해 남성 육아휴직 1000명 돌파</b> A20면
		내용	롯데그룹에서 올 들어 육아휴직에 들어간 '남자' 직원이 1000명을 넘어섬. 한국 연간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명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명 가운데 1명이 롯데 직원인 셈이다. 롯데는 남성의 육아 참여가 '워킹맘'의 경력단절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올해 1월부터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전 계열사에 시행.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남자 직원은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내야 함